

건강보험 속 숨어 있는 혜택을 찾아라

최근 치료 목적의 비만 진료는 건강보험료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복지부 측은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내심 비만 치료 대상 범위를 고심하는 눈치다.

이번 사례처럼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국민건강보험의 숨어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1. 지나치기 쉬운 출산비·장제비 챙겨 받기

산모가 자택, 구급차 등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7만6,400원, 둘째부터는 7만1,000원이다. 만약 집에서 출산하고도 출산비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25만원의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장제비를 받으려면 가족, 친지 등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까운 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 헛갈리기 쉬운 MRI 보험 적용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모든 부위의 암진단과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 탈수초성 질환에 적용된다. 단,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검사로 진단이 가능할 때는 2차 정밀검사에 적용된다.

또 척수 손상, 척수염 등 '척수 질환' 진단에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디스크 등 '척추 질환' 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장기간 외국 체류 땀 보험료 내지 않는다

외국에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출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귀국한 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에서 복용할 약을 국내에서 미리 받을 경우, 출국 전에 처방받았다면 보험이 적용된다.

4. 자연분만 출산 비용은 100% 공단에서 지급

산모가 병·의원, 조산소, 보건기관 등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후 자연분만 이외의 방법으로 신생아를 출산했다면 출산 비용의 80%는 건강보험공단, 출산 비용의 20%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자연분만은 출산비의 100%를 공단에서 부담한



다. 단,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제왕절개로 분만하거나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택하고 무통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5. 암환자, 심장·뇌혈관 질환자 부담금 절감법

‘암 환자 등록제’에 따라 암 환자로 등록한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진료비 중 10%만 부담하면 된다. ‘암 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설치된 건강보험 상담센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는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30일 동안의 진료비 중 10%만 내면 된다. 대상 수술은 개심술, 개두술, 중재적 시술, 뇌혈관 색전술, 관상동맥 확장술 등 총 74종이다. 암 환

자와 달리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활용

만 40세와 만 66세에 한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만 40세는 중성지방(TG), 좋은 콜레스테롤(HDL), 크레아티닌(신장 기능), B형 간염, 우울증 선별검사, 위암·유방암·간암·자궁경부암 등 4대 암 검진을 받는다.

만 66세는 만 40세 검진 항목을 포함해 노인 신체 기능(근력, 평형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장애(치매), 노인 청력검사와 대장암 검사가 추가된다. 여성은 골밀도 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7. 보장구는 사지말고 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료와 재활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보장구(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 기구 등)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무료로 대여해준다.

대여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마당 → 보장구 대여 사업 → 보장구 예약 신청란에서 접수하면 된다. 📄

■ 건강보험 관련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 1577-1000
- 암 환자 등록 관련 문의 : 1588-1125
- 외국인 영어 전용 상담창구 : (02)390-2000

- 출처 : 우먼센스